

격려사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웃음이 가득한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산업 현장에서 땀 흘리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은 국제화 시대이며 다문화 사회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나아가 국경과 인종을 초월하여 우정과 문화를 나누는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자비와 평등의 정신이며,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하는 뜻도 여기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 타국에서의 외로움을 달래며 동포끼리 우의를 다지고, 또한 이웃의 외국인들과 우정을 나누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 생명의 공동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 가족들이 함께 어우러져, 인종·언어·문화를 초월한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갖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체육경기와 다양한 국가의 전통문화를 경험하면서 오늘 하루를 마음껏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의 즐거운 기억이 일상생활의 행복으로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매년 뜻 깊은 자리를 만들어 주시는 ‘마하 이주민지원단체 협의회’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함께 웃는 이 자리 모든 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불기2558(2014)년 11월 16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합장